

윤이상의 음악세계로 살펴본 통영국제음악제의 발전방향

The Future Direction of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s Seen through the Musical World of Isang Yun

이의신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Eui-Shin Yi(yes@iscu.ac.kr)

요약

통영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추모음악회로 시작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을 하며 국제적인 음악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윤이상의 음악세계로 살펴본 통영국제음악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한국 근대사의 비극을 겪고, 고국에서 추방된 윤이상이었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한국, 특히 통영의 문화적 유산을 부단히 창조적 에너지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음악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남과 북, 거장과 신예를 아우르는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음악제에 투영되어 있다.

통영국제음악제가 국제적인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윤이상의 음악창조의 진원지로서 통영의 유형, 무형의 문화적 자원 속에서 그 가치를 찾아내어 음악제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역량의 기반아래 서구 음악제와 차별되는 독창적인 음악축제의 모습을 갖춘다면, 통영국제음악제는 세계적인 음악도시의 성공적인 음악 축제로 약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중심어 : | 통영국제음악제 | 윤이상 | 음악축제 | 축제 | 통영 |

Abstract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was established to commemorate the world-renowned composer Isang Yun. Despite its short history, the event is quickly grown into a global music festival. This paper considers the future direction of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s seen through the musical world of Isang Yun. Although Isang Yun suffered through Korea's modern history and was deported from his own country, his works clearly use Korea, in particular the cultural heritage of Tongyeong, as his creative energy. His music is reflected in the festival in various forms, i.e., East and West, past and present, North and South and maestro and rookie, while pursuing a world of harmony.

In order for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to join the ranks of global festivals, an effort needs to be made to find the values from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of Tongyeong, the source of Isang Yun's musical creations, and connect these values to the music festival. I believe that, based on such cultural capacity, when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becomes a unique festival that differentiates itself from music festivals in the west, it will advance into the successful music festival of a global music city.

■ keyword : |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 Isang Yun | Music Festival | Festival | Tongyeong |

I. 서론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경남 통영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표적 예향(藝鄕)으로 손꼽혔으며, 2002년 문을 연 통영국제음악제를 계기로 세계 속의 음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출신의 작곡가 윤이상의 위상과 음악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려는 추모음악회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9년 '윤이상 음악의 밤'과 2000년, 2001년 통영현대음악제로 출발하여, 2002년 제 1회 통영국제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대규모 음악축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는 매년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가, 2005년부터는 TIMF(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아카데미가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특히,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는 전 세계의 젊은 연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고, 음악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

한국에서 윤이상의 음악사적 의의를 조명하려는 구체적인 활동은 통영국제음악제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40대 이후 작곡한 것만으로도 120곡이 넘으며 장르도 매우 다양하다. 또한 그는 독일에서 출간된 '20세기의 중요작곡가 56인', '유럽의 현존하는 5대 작곡가', 1995년 독일의 방송에서 20세기 100년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 중 한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사망 전까지 함부르크와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 및 국제현대음악협회(ISCM)의 명예회원으로 활동[2]했고,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 교수들에 의해 사상 최고의 음악가 44인 중 한 사람으로 뽑히기도 했다. 이는 윤이상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현대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부분 예술인 윤이상이 아닌 '동백림 사건의 윤이상'으로 회자되곤 했다. 하지만 그가 쌓은 업적과 명성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에 걸맞은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통영국제음악제는 그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로 전환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통영국제음악제는 여러 변화를 거쳐 오면서 빠른 성장과 발전을 하였고, 음악제의 모태가 된 윤이상 음악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음악을

대한민국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색다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로써의 면모를 이어오고 있으며, 2014년에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통영국제음악당'이 개관하면서 음악제가 한층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편에서는 윤이상의 과거행적과 예술적 업적을 둘러싼 논란이 음악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윤이상과 통영국제음악제의 역사와 활동 자료에 의거하여 그 공과를 검토하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통한 통영국제음악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윤이상의 정치적 논리나 사회적 관계가 아닌, 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지향하고 통합을 원했던 그의 음악세계를 다루고자 한다. 그의 음악은 동서양의 전통과 정신이 공존하면서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했고, 이는 축제의 본질적 가치인 공동체 의식, 문화 정체성 확립과도 그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의 음악관이 발현된 통영국제음악제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경계, 남북한의 경계,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과 화합의 장으로써 진정한 현대 축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검토

이영은[3]은 『통영국제음악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에서 음악제가 남북교류의 협력증진을 통해 그가 평소 음악적으로 중시했던 민족성을 알리는 국제적 음악제로 발돋움해야 하며, 그의 곡, 몇 곡에 편중되어 연주되고 있는 것을 발전 확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대중에게 보급해야 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학술회의와 심포지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 학교의 수업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과정에도 그의 음악세계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것, 연주자 발굴과 병행해 작곡 및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 후진양성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김희진, 안태기[4]는 통영국제음악제의 성공요인으로 첫째, 저명한 음악가들의 출연 둘째, 성공적인 시

준제 셋째, 프린지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넷째, 아카데미를 통한 신진 예술가 교육, 마지막으로 통영시의 환경, 공간의 계획과 실행을 언급하였다. 또한, 백선휘[5]는 통영국제음악제가 시와 재단의 재원 의존도가 높아 불안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서수진[6]은 통영시의 숙박, 공연시설 등 인프라 시설 부족 문제를 말하였다. 김수진[7]은 『윤이상 작품에 나타난 사회, 문화, 정치적 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윤이상을 중심으로, 음악 또는 음악인과 정치와의 관계, 음악 작품에 정치성을 내포하는 경우 등 음악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윤이상 작품에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미친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예술의 사회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망명음악가 윤이상』에서 이경분[8]은 윤이상의 삶과 작품에 담긴 망명의 흔적을 살펴보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망명자가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정치적 망명이 그의 작품세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 종합해서 다음의 4가지로 서술하였다. 첫째는 한국 전통악기를 위한 작품이 전혀 없는 점, 둘째는 정치적 음악으로의 비중이 옮겨간 점, 셋째는 음악적(장르적, 음악 언어적 측면에서) 보수화 현상, 넷째는 일본음악인들과의 교류 및 일본인 제자 육성의 비중이 컸던 점이다.

III. 본 론

1. 윤이상의 삶과 음악(1917~1995)[9][19-21]

윤이상은 일제강점기에 경상남도 산청(山淸)에서 출생한 뒤, 네 살이 되던 해부터 통영(統營)에서 성장한다. 그 후, 일본 오사카 음악대학에서 첼로와 작곡 이론을 배웠고, 24세가 되던 1941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독립운동을 하다가 1945년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다. 이후 통영고등학교에 재직하며 유치환(柳致環 1908~1967), 김춘수(金春洙 1922~2004), 정윤주(鄭潤株 음악가 1918~1997) 등 통영의 예술인들과 통영문화협회를 만들어 활동한다. 1950년 부인 이수자 여사와 결혼한 뒤, 1953년 서울대학 예술학부와 덕성여대에서 작곡과 음악이론을 가르치며 작품과 평론활동을 한다. 이 때

작곡가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문화예술인의 최고영예인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윤이상은 1956년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되며,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작곡과 음악이론 배운 뒤 독일의(서)베를린 음악대학으로 전학하여 대위법과 푸가, 12음기법을 공부한다. 그리고 3년 뒤 쇤베르크의 12음계 기법에 한국의 정악(正樂) 색채를 담은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하면서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서양 음악에 동아시아 음악의 요소를 접목시킨 그의 작품들은 1965년 오라토리오 ‘옴 마니 파드메 흠’(om mani padme hum : 오! 연꽃 속에 있는 보석이며)이란 뜻으로 재앙과 질병에서 관세음보살이 지켜주고 성불하거나 큰 자비를 얻는다는 민음이 담긴 말), 1966년 도나우 에칭엔 음악제에서 레악(Reak)의 연이은 성공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다. 그는 주로 한국 궁중음악에 대한 연상 작용을 이용해 작곡을 했는데, 피리는 오보에, 가야금은 하프, 대금은 플루트, 해금은 바이올린으로 대신 하는 등 한국 전통 악기의 음색을 서양악기로 옮겨 표현하는 독특한 기법과 음색을 사용했다. 또한 20세기 무조음악을 작곡하며, 한국음악의 특징인 주요 음과 주요 음향을 서양의 현대기법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작곡 기법을 개척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에 한국의 전통음악을 접목시켰고, 오페라 심청,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 등 한국어 제목을 붙임으로써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다. 이처럼 그가 세계음악사적 흐름에 영합하면서 독창적 음악관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유학자(儒學者)였던 부친의 슬하에서 서당에 다니며 중국고전을 접했던 점과 그가 탄생하고 성장한 곳이 통영[10]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통영은 풍부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일본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유럽의 신문화가 활발하게 교차하던 곳으로 많은 민족적 시인과 예술가들을 배출한 문화적 요지이자, 정치적,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다. 그는 통영의 역사와 다채로운 전통문화, 그리고 신문을 온몸으로 호흡하며 성장했던 것이다 [11].

1963년 윤이상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위해 필히 직접 보아야 할 테마였던 강서고분(江西古墳)의 사신도(四神圖)를 보기 위해 북한으로 향하지만, 결국 이 발걸음

으로 평생 고국에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한 한국의 민주화 투쟁 활동과 1963년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1967년 6월 17일 윤이상과 부인이수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소환되어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1968년 그는 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그 사건으로 감옥 안에서 작곡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게 된다. 그 때 쓴 작품이 오페라 '나비의 꿈', '나비의 미망인', '율(律)', '영상(映像)' 등 이었다. 이 작품들은 부인을 통해 독일로 전달되었고, 1969년 2월에 뉘른베르크에서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으로 초연되며 호평을 받는다. 세계적 예술인들은 그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한국정부에 보냈고 독일정부와 함께 연주회 등을 열기도 했다[12].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윤이상을 서독으로 추방했고, 입국을 금지하면서 그의 작품 연주도 금지였다.

1969년 2월, 독일로 간 그는 서독으로 귀화하여 '조국 통일범민족연합'의 유럽 본부장을 하는 등 한국 민주화를 위한 활동과 작품 활동을 한다. 그 후 뮌헨 올림픽 문화행사로 의뢰받은 오페라 『심청』이 전 세계의 주목과 극찬을 받으며 국제적 명성을 얻는다. 1980년 신군부에서는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북한에서는 1994년 윤이상 음악 연구소와 윤이상 교향악단을 만드는 등 남북 모두 그의 음악성과 명성을 탐냈다[13]. 북한에서는 1982년부터 매년 윤이상 음악제가 개최되었고, 대한민국에서도 그의 음악이 해금되었다. 1994년 윤이상은 25년 만에 귀국을 추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1995년 유명을 달리했다[14].

세계 음악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조국에서만은 버림받았던 윤이상은 독일에 살면서 이미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름을 떨쳤고, 동강난 두 조국의 통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또한,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음악을 통해 사랑과 평화를 기원했고, 조국에 뿌리를 두면서 다른 전통음악과 국가들의 음악을 결합시키는 “세계음악”을 지향했다. 독일의 음악학자 크리스티안 마틴 슈미트(Christian Martin Schmidt)는 “다원적 세계주의자”(Pluralistischer Kosmopolit)[15]라고 그를 명명하기도 했다.

2. 통영국제음악제의 탄생부터 통영국제음악당까지

통영국제음악제는 1999년 5월 '윤이상 가곡의 밤'이라는 단일 음악회로 출발하여, 2000년과 2001년에는 '통영현대음악제-윤이상을 기리며'라는 이름으로 그의 대표곡은 물론, 현대음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여는 등 국제음악제로의 가능성을 다졌다. 또한 2001년 2월 '일과 여성'이란 주제로 열린 통영현대음악제에서는 음악회와 세미나, 각종 워크숍과 강연 등 국제음악제로 가기 위한 시험무대가 펼쳐졌다. 2002년 3월에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가 출범하였고, 2002년과 2003년에는 '통영국제음악제'를 통해 현대음악뿐만 아니라 고전 음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국제 음악제로써 입지를 굳혔다. 음악제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 중에 개최되는데, 개최일자와 기간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며 주제와 테마 또한 매년 다르게 선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목표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과 그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축제로 구성한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초기부터 2014년까지 열린 통영국제음악제의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통영국제음악제 주제 (1999-2014)

년도	주제	년도	주제
1999	윤이상 가곡의 밤	2007	만남
2000	윤이상을 기리며	2008	자유
2001	음악과 여성	2009	東과 西
2002	서주와 추상	2010	音樂 +
2003	꿈	2011	전환
2004	공간	2012	소통
2005	기억	2013	자유... 고독
2006	유통	2014	Seascapes

2002년 첫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서주와 추상'이라는 주제로 1980년 광주에 아픔을 노래한 '광주여, 영원히!', 남경대학살을 고발하는 비파협주곡 '난징! 난징!' 등 동아시아 역사에 있어 부조리를 노래하는 곡들이 창작 초연되었다. 2003년에는 '꿈'이라는 주제와 '음악과 종교'라는 부제 아래, 국립국악원이 종묘제례악을, 후고볼프 현악4중주단이 하이든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상트 페테르부르크 카펠라 합창단이 '성요한 크리스로스

틈을 위한 리트루기'를 연주했다. 2004년부터는 시즌제를 도입해 계절별로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점차 안정화되었다. 2005년에는 윤이상 타계 10주기를 기념해 '기억'을 주제로 하여 고음악의 현대적 해석의 거장 '호르디 사발과 에스페리옹 21', 벨기에의 '익투스 앙상블', '아르디티 현악 사중주단' 등 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2006년에는 윤이상이 1964년 발표한 '유동'(流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쇼스타코비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2007년부터는 봄 시즌은 연주 위주로, 가을 시즌은 콩쿠르 위주로 프로그램을 더욱 차별화시켜 진행했다. 2008년에는 '자유'를 주제로, BBC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윤이상의 곡을 연주하였고 특히 가을시즌의 개막공연과 장한나&런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조기 매진을 이루며 관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성공했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윤이상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 교류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2008년까지 경남국제음악콩쿠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해가 생기자,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명칭 변경을 신청했고, 2008년 5월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으로부터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후 이 콩쿠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람 이름을 딴 국제콩쿠르가 되었으며,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으로 이어지는 3년 주기 원칙으로 번갈아 개최된다. 또한 윤이상평화재단과 국제 윤이상협회 주최로 2007년부터 '윤이상 음악상'이 시작되었고, 2009년부터는 '국제 윤이상 작곡상'으로 그 명칭을 변경,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참가자의 성별, 국적에 제한이 없으며, 참가곡은 15~35명 규모 소편성 오케스트라 곡(연주시간 10~15분)의 미발표 신작이다. 이러한 경연대회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윤이상의 명성만큼이나 국제적 인지도를 얻으며 통영국제음악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를 발굴, 육성하는 산실로 자리 잡고 있다.

2009년 한국의 클래식 음악계는 상반기 경기 침체와 하반기 신종 플루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주춤하였다. 불황의 여파로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의 내한 공연이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랐으며, 신종플루로 인파가 운집하는 곳을 찾기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모든 공연장에 관객의 수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통영국제음악제는 좌석은 물론, 입석까지 차는 등 그 위상을 한껏 드높이며 총 17개의 유료공연 중 7개 공연의 전석이 개막전 매진되어 90%이상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 열린 봄시즌은 국립오페라단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로 시작되었다. '뮤직(音樂)+'라는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이 음악제에서는 음악에 다양한 예술 장르가 접목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총 27개의 현대음악 작품이 연주되었고, '한국의 작곡가들'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의 곡을 소개하여 제2의 윤이상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과 통영국제음악제의 취지를 잘 반영하였다.

2011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는 젊은 독일 음악인 알렉산더 리브라이히를 3년 간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영입해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10회째를 맞아 '전환'을 기치로 내건 2011 TIMF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동서양 음악의 접목을 통해 음악제에 활력과 실험성을 부여하였다. 젊은 예술감독 리브라이히의 야심찬 기획으로 현대음악에서 재즈, 아카펠라, 음악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리브라이히는 열흘 정도 통영에 체류하면서 음악 애호가들과 매일 1시간씩 티타임을 갖는 등 소통의 의지를 실천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연주자와 객석에서 세대교체의 조짐을 보인 것 역시, 새로운 10년을 맞는 변곡점의 시기에 어울리는 것이었다. 실제로 객석 곳곳에서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부쩍 늘어난 모습을 보였으며, 16개 공연 가운데 어린이콘서트 '나이팅게일', 하이너 괴벨스의 음악극, 폐막공연 등 절반이 매진을 기록했고, 전체적으로는 90%에 육박하는 객석점유율을 나타냈다.

2012년에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예술과 관객, 관객과 관객, 예술가와 관객, 예술가와 예술가 간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술감독 리브라이히가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단원 25명과 TIMF앙상블 단원 25명을 주축으로 윤이상 콩쿠르 입상자들과 함께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TFO)'를 결성하여 '소통'이라는 주제에 그 의미를 더

하였다. 2013년의 주제는 ‘자유... 고독’이었는데, 이는 작곡가 슈만을 비롯한 수많은 음악가들의 예술적 삶의 모토였던 ‘Frei aber einsem-Free but lonely (자유롭게, 그러나 고독하게)’로부터 비롯된 아이디어로, 작곡가 윤이상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 개막 공연으로 바르코 오페라와 패션쇼가 만난 세계적인 화제작 ‘세멜레 워크’를 비롯한 TIMF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오페라, 챔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에는 10년 만에 결실을 본 통영국제음악당이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과 함께 개관하였다. 음악당은 1300석 규모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300석 규모 다목적홀 외에 공연지원과 업무, 교육 시설 등을 갖췄다. 통영시의 시조(市鳥)인 ‘갈매기’ 두 마리가 통영 앞바다를 배경으로 비상하는 독특한 외관이다. 2014년 음악제의 주제는 “Seascapes(바다풍경)”으로, 바다와 음악당이 어우러진 멋진 바다풍경이, 방문하는 예술가와 관객에게 큰 영감을 선사하기 바란다는 마음을 담아 정해졌다.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통영의 바다 모습이 윤이상의 음악세계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는 데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IV. 발전방향

1. 윤이상을 통한 ‘음악 도시’ 이미지 구축

통영국제음악제는 윤이상이라는 인물과 그의 음악을 통해 통영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재생산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들이 음악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노력해왔지만 그 성공은 쉽지 않았다.

음악도시로서의 성공은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어야 한다. 통영은 박경리, 유치환, 김춘수 등 수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하였고 예향이라 불리며, 음악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이라는 브랜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음악 도시’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통영국제음악제가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목적으로

탄생한 음악제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과 윤이상 간의 연관성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이슈몰이에 치중한 작품선택, 초기에 ‘윤이상 국제 음악제’로 기획됐던 음악제는 ‘통영국제음악제’로, ‘윤이상국제음악당’은 ‘통영국제음악당’으로 명칭을 바꾸며 ‘윤이상’이라는 브랜드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통영과 통영국제음악제는 처음 음악제를 가능케 했던 기본적인 요인들에 한 번 더 주목하고, 이 러저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섞여지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통영과 윤이상 음악이라는 고유의 정서적 토대를 잃는다면 국제적인 반열에 올라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이상’이라는 존재는 곧 음악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Salzburg)는 ‘모차르트의 고향’이라는 브랜드로 모차르트 생가와 거주지 등 15개의 모차르트 연계 관광지를 엮어 개발했으며, 작은 도시에서 국제적인 음악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문화유산 지정(1996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라는 명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공업도시인 리버풀이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비틀즈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명망 있는 콩쿠르는 그 나라의 대표적이고 훌륭한 음악가의 이름을 따르고, 세계 유수의 음악제는 개최도시의 이름을 쓴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나 쇼팽 국제 콩쿠르가 러시아와 폴란드의 자랑이 되고,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나 스위스의 루체른과 같은 도시들이 음악축제로서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통영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 윤이상이 통영을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 음악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전 세계 음악인과 관객을 동양의 작은 항구도시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2. 공동체적 합의를 통한 음악제 개최

10여년 만에 결실을 본 통영국제음악당은 축하해야 할 개관식에 음악당 개관 반대시위가 있었고, 인구 14만여 명의 도시 규모에 비해 그 규모가 크다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시공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전 통영시장은 음악당을 세계적인 규모로 세워 통영을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완성시킨다는 비전하에 1500억 원의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고,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주제 속에 음악당의 설계를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사 프랭크 게리(Frank Gehry)에게 맡기려고 했지만, 윤이상의 사상 전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규모를 줄여 음악당을 세우는 데 만족했어야 했다. 또한 여전히 음악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반발여론과 음악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녹록치 않다. 성공적인 국제 음악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영의 정치인, 공무원, 지역주민, 미디어의 공동체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역의 발전과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조율과 공동체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에든버러페스티벌, 프랑스의 아비뇽페스티벌, 독일의 바이로이트페스티벌 등 성공한 공연예술축제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장착하여 축제의 성공이 결과적으로 도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가가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도시 활성화를 위해 축제가 하나의 요소로 끼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축제가 고유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 도시 활성화라는 과실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16]. 통영시와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음악제를 통하여 지역주민과 외지인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도모, 지역주민의 참여의식과 소속감, 외지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축제 전문 기구 구성

최고경영자가 일관된 비전과 미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 예술감독 중심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축제 전문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예술축제 조직은 이사장 및 이사회구성이 당연직에 의해 구성된다. 2014년 새롭게 출범한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다. 이는 음악제의 운영에 있어 공무원들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며 축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官)의 도움 없이 음악제를 운영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안전, 홍보, 교통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민간기구가 스스로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도움은 행정지원에 그쳐야 한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문화정책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거나 실패한 축제들, 정치적 외풍에 자유롭지 못한 축제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공적자금에 의존한 불안정한 재원, 지자체 또는 정부 정책변화의 영향 등은 축제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어렵게 한다. 특히 이러한 점들은 예술축제의 국제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전문성과 연속성, 공공성이 담보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 전문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4. 기록화[17]

10여년이 지난 시간에 비해 통영국제음악제에 대한 기록은 턱없이 부족하다. 음악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의 인터뷰나 좌담 등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에 의한 신문기사들에 의지하여 쓰인 글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는 음악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축제 조직 내에서 밖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다음 축제를 위한 준비로 파편적,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기록들을 때마다 담아내기 힘든 것, 소규모 축제 인력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책임자의 수가 적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하지만 통영국제음악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험적 자료의 축적과 세부적인 기록, 평가와 운영의 노하우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여건상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하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진 성공적인 해외의 축제들은 그 축제 운영의 역사, 관련 인물들, 참가단체들, 예술교류의 흔적들, 사진, 영상자료들이 비교적 잘 관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 자료의 기록과 보관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통영국제음악제가 국제적인 축제로서 그 위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발판이 되어 줄 것이며, 향후 연구 및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이라는 음악사적 배경과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통영은 통영국제음악제의 성장과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음악제 자체의 성장 뿐 아니라 정신적, 예술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모든 예술적, 철학적, 미학적 전통은 조국에서 생겼다 [18]."라고 말하는 윤이상의 삶 속에서 감수성이 풍부했던 시절에 아름답고 다양한 통영문화를 체험하고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화합을 염원했지만 현실에서 이를 수 없었던 좌절감은 윤이상에게 커다란 상처와 고통을 주는 동시에 그의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부단한 창조적 에너지로 삼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남과 북, 거장과 신예를 아우르는 화합의 세계를 추구하며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으로 통영국제음악제에 투영되어 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작곡가 윤이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메인타이틀에 굳이 '윤이상'이란 이름을 끼워 넣지 않았어도, 통영국제음악제의 잉태단계에서부터 윤이상의 존재가 음악제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윤이상과 통영국제음악제의 역사와 활동 자료에 의거하여 그 공과를 검토하고,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통한 통영국제음악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통영과 통영국제음악제는 윤이상이라는 인물과 그의 음악을 통해 통영의 '음악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재생산해나가야 한다.

둘째, 통영의 정치인, 공무원, 지역주민, 미디어의 공동체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역의 발전과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조율과 공동체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문성과 연속성, 공공성이 담보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축제 전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공적자금에 의존한 불안정한 재원, 지자체 또는 정부 정책변화의 영향 등은 축제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제 자료 축적과 세부적인 평가, 운영의 노하우들을 보관, 기록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은 음악제의 큰 자산이자 향후 연구 및 교육의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며, 국제적인 음악축제로서의 위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축제의 성과는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축적된 노하우와 일관된 비전과 미션으로 밀고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축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축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명백한 지역적 가치와 지역 특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즉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이루게 한 음악창조의 진원지로서 통영의 문화적 자원들 속에서 그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고, 발굴하여 그것을 음악제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 무형의 문화자원과 문화역량의 기반은 통영국제음악제를 서구 음악제와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음악제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http://www.timf.org>
- [2] 김용환, *윤이상 연구*, 시공사, 2001.
- [3] 이영은, *통영국제음악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8, 2011.
- [4] 김희진, 안태기, *문화예술축제론*, 한울아카데미, 2010.
- [5] 백선희, "장소성과 장소마케팅", *한국학술정보*, p.258, 2005.
- [6] 서수진, *대구음악제 활성화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40-41, 2011.
- [7] 김수진, *윤이상 작품에 나타난 사회 문화 정치적 요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문, 2003.

- [8] 이경분, “망명음악가 윤이상”, 동양정치사상사, 제 10권, 제1호, 2011.
- [9] 윤이상 외, 상처 입은 용 (윤이상 루이제 린저의 대화), 랜덤하우스 코리아, 2005.
- [10] 노동은, “한국에서 윤이상의 삶과 예술”, 음악과 민족, 제17권, pp.57-59, 1999.
- [11] 김용환, 윤이상 연구, 시공사, 2001.
- [12] 조희창, “지휘자 임원식이 말하는 윤이상”, 월간 객석, 12월호, p.20, 1995.
- [13] 이상만, “통영시와 윤이상음악제의 성공요인”, 월간 너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 [14] 최우성, 최우리, “한 예술가의 치욕, 한 지식인의 오관”, 한겨레, 2012.1.27 기사 발췌
- [15] 김용환, 윤이상 연구, 시공사, 2001.
- [16] 손경년, “정책지속성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 2010.
- [17] 정희경, 음악제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통영국제 음악제 발전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18] 윤이상, 최성만, 홍은미 편역, 윤이상의 음악세계 -나의 조국, 나의 음악, 한길사, 1991.
- [19] 김용환, “제 I 부 윤이상의 삶과 음악”, 윤이상 연구, 시공사, 2001.
- [20] 이상만, 문화조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2.
- [21] 노동은, “한국에서 윤이상의 삶과 예술”, 음악과 민족, 제17권, 1999.

저 자 소 개

이 의 신(Eui-Shin Yi)

정회원



- 2003년2월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 (예술전문사)
- 2005년6월 : Birkbeck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Arts Management (Diploma)
- 2012년 1월 ~ 현재 : 서울사이

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공연기획/제작, 공연장, 예술축제기획, 관객개발, 문화마케팅, CSR